

“공부하는 기쁨, 어려운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문해교실서 한글 배운 박덕임 할머니 의료비 아껴 남구에 장학금 100만원

“나처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 의료비도 아껴가며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진월동에 거주하는 박덕임(85·사진) 할머니가 최근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시고 고맙다”고 말한 뒤 보라색 편지 봉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수기로 작성한 할머니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빼뿔뿔하게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의료비를 아껴가며 모은 현금 100만원이 담겨 있었다.

장학금을 기부한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 글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속 응어리를 문해교실을 통해 해소하게 된 고마움 때문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멋진 응어리를 남김없이 풀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남구청에서 실시한 문해교실을 찾았

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평생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박씨 할머니는 올해 열린 문해교실 끝짓기 한마당에서 이해인 수녀의 ‘꽃밭에서’ 시 작품을 필사본으로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배우지 못했다. 우리 자식들도 다 알고 있고, 나처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남구 관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세밀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진월동 한국아텔리움 1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이웃간 소통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나바다 장터 및 아이들을 위한 그림·표어 짓기 행사를 개최한 뒤 수익금 50만원을 남구장학회에 기부했다.

또 백운2동 주민자치회도 기부물품을 후원 받아 지난 4일 푸른길 공원에서 ‘백운2동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어 판매 수익금 50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남구 관계자는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며 “십시일반으



〈남구청 제공〉

로 모아준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인아이월·백인종합건설, 보훈가족에 김장김치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이 최근 ㈜백인아이월(대표 양광식), ㈜백인종합건설(대표 양요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백인아이월과 백인종합건설은 겨울철 고령 무의탁·독거 등 취약계층 보훈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5kg)

650박스(30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후원물품을 보훈가족 650가구에 전달했다.

두 회사의 대표는 국가유공자인 고양해천씨의 자녀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위한 쌀, 반찬 등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해 왔다. /정병호 기자 jusbh@

우산LH1단지 ‘늘만찬’, 입주민에 코로나 위로 반찬나눔

우산LH1단지 ‘늘만찬’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꽃게간장기 등 반찬을 만들어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입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사진>



〈우산LH1단지 제공〉

늘만찬은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된 늘행복건강밥상 사업으로 창립했다. 광산구, LH, 공공기관, 민간 등 협업을 요리교실, 반찬나눔활동, 건강도시락 판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 건강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반찬제공 등을 하고 있다.

이해련 우산LH1단지 관리소장은 “정성과 마음이 담겨진 음식들을 입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주거복지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2022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수 아이유, 연말 맞아 암 환자·소외 아동에 2억원



가수 아이유(사진)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총 2억원을 기부했다. 24일 밝혔다.

아이유는 암 환자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각각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와 방한용품 구입비로 쓰인다. 또 조손가족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서울아산병원을 통한 소아암·여성암 환자의 수술비·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아이유는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게 됐다”며 “소외되는 이웃 하나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사회서비스원, 예수의 소화수녀회에 후원금



〈광주사회서비스원 제공〉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이 최근 예수의 소화수녀회를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해 포상금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조호권 원장은 “우리의 후원이 광주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서비스원의 ESG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글로벌 도내이션쇼 W 스페셜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다큐 온(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45 주라기갑스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스포츠 특선 FINA 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kbc특집다큐멘터리 나눔이 희망입니다(재)
1	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UHD 송터(재) 55 당신을 응원합니다(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연(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국민의힘> 30 두 번째 남편(재)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내 고향 전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라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사랑의 파베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50 개는 훌륭하다	30 피의 게임 몰아보기	00 그해 우리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김명철의 동네 한 바퀴(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00 스포츠 매거진 4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40 나이타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코코몽2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0 하트가 빛나는 순간
07:15 출동! 슈퍼왕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돌래기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스 e	<활출한 고립 1부 로빈슨 크루소처럼>
08:30 엄마 까투리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세상 끝까지, 아르헨티나>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활출한 고립 1부 로빈슨 크루소처럼>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05 신계속의 맛터사이어클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1월 24일 己酉)

☎ 010-9790-8237

<p>36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다. 48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60년생 할 일들이 많아 바쁘다. 72년생 결기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84년생 지리멸렬함을 청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이겠다. 96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행운의 숫자 : 47, 77</p>	<p>42년생 표현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54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66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78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90년생 활용한다면 편한 결과를 낳는다. 02년생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행운의 숫자 : 45, 59</p>	
<p>37년생 한 숨을 쉴 일이 보인다. 49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61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73년생 인내심을 발휘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85년생 시종일관 방심하지 않고 진행해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97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좋다. 행운의 숫자 : 44, 68</p>	<p>43년생 예기치 못한 국량이 조성될 수 있으니 운로를 참고한 후에 진보를 결정해야겠다. 55년생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기쁜 시간을 나누라. 67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79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91년생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03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지겠다. 행운의 숫자 : 20, 87</p>	
<p>38년생 기본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곤란하다. 50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62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86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로 임해야 해결하게 되느니라. 98년생 왓자지껄하게 떠들어서 대고 있는 국세로다. 행운의 숫자 : 29, 82</p>	<p>32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다면 터질 수밖에 없다. 44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56년생 실질을 숭상하는 것이 생산적인 국면을 조성한다. 68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반쯤이 생기기 않는다. 8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92년생 근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2, 80</p>	
<p>39년생 뻥히 다 예견하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51년생 신중하게 선택하라. 63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을 것이다. 75년생 약속 되어 있는 바나 마친가지이다. 87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99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92</p>	<p>33년생 실행하기 전에 겁이 나겠지만 막상 해보면 별 것이 없을 것이다. 45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57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69년생 윤색된 이면에는 검은 부분이 숨겨져 있느니라. 81년생 가정이 실상이 된다. 93년생 차례대로 실행했을 때 타산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1, 52</p>	
<p>40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다. 52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64년생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마무리 말라. 76년생 화의 씨앗은 아예 만들지 말라. 88년생 치밀해야 한다. 00년생 포장만 잘 해도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63</p>	<p>34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46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도다. 58년생 반갑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70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82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노라. 94년생 철저하게 관리할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93</p>	
<p>41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국세로 탐바뽀할 수도 있느니라. 53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 들어올 수가 있다. 65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77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89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01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8, 51</p>	<p>35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47년생 승상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59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70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82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노라. 94년생 철저하게 관리할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93</p>	
	<p>36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47년생 승상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59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70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82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노라. 94년생 철저하게 관리할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93</p>	<p>35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47년생 승상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59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70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82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노라. 94년생 철저하게 관리할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93</p>